

피싱예방서 건강관리까지...광양시 디지털 교육 중심지 도약

전남도 동부권 상설 디지털배움터 선정...강사 등 상시배치 커뮤니티 센터서 12월까지 AI 활용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

광양시가 전남 동부권 상설 디지털배움터에 선정되는 등 디지털 교육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광양시는 최근 시가 전남도 디지털배움터 교육 사업의 전남 동부권 상설 디지털배움터 운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설 디지털배움터는 강사와 보조강사를 상시 배치해 언제든지 방문하면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디지털배움터 위치는 광양 커뮤니티 센터 1, 5층(광양시 중마로 410)이며 기존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교육장 일부를 활용한다.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강사 등 인력은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본인인증과 공공서비스 활용 ▲금융 및 피싱 예방 ▲인공지능(생성형 AI) 활용 ▲실생활 디지털 활용(헬스케어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다

룬다. 또 시민들이 간단한 핸드폰-컴퓨터 조작 등의 일상 속 디지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헬프 데스크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아이케어(AI 기반 눈 검진 장비), 디지털 혈압계, 인바디측정기 등 건강 진단 디지털 기기를 배치한 테마형 체험존도 마련해 실생활에서 유용한 디지털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상설 디지털배움터 외에도 지난해 운영된 디지털배움터 11개소 중 주요 교육장을 선정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용신 광양시 디지털정보과장은 "이번 상설 디지털배움터 선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더욱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정보화 사회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이 '여름방학 한-중 중학생 홈스테이'에 참가하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 중학생 16명 중국 보타구·상해서 '여름방학 홈스테이'

20~24일 4박 5일 일정

참가 학생·교사 등 사전교육

곡성군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보타구와 상해 일원에서 2024년 '여름방학 한-중 중학생 홈스테이'를 진행한다. 곡성군은 홈스테이를 앞두고 참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국어 회화 및 홈스테이

안내 사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홈스테이 기간 동안 필요한 기초 중국어 회화를 배우고 홈스테이 관련 안내를 받았다. 학부모 교육에서는 홈스테이 추진 일정, 준비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이번 홈스테이에는 곡성군 지역 2개 중학교에서 16명의 학생이 참가하며, 인솔 대표단 6명을 포함해 총 22명이 방문한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참가 학생들은 곡성군 우호도시인 중국 절강성 보타구의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며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학교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홈스테이를 통해 우리 지역 중학생들이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넓히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구례군, 지방자치경영대상 '인구활력 특별상'

양수발전소 유치·흡살리기 호평

구례군이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인구활력 특별상'을 수상했다. (사진)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 성과를 평가해 우수 사례를 장려하고 전파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인구활력 특별상'은 전국 지자체 중 1개 지자체에만 주는 상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구례군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구례군이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사활을 걸었던 1조 4000억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 성공으로 총 6000억원의 자금 유입과 6000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탄소중립 흡 살리기 운동도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흡 살리기 선포식을 개최하고, 정치권과 연대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흡 살리기를 국가적 의제로 이슈화했다. 이 외에도 2643억원이 투자되는 자연드림 치유 힐링 클러스터 유치와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계획 수립으로 국비 1133억 확보, 오산 케이블카와 지리산온천 골프장 조성 민자유치, 2026년 전남체육대회 유치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수상을 통해 구례군의 그간의 노력이 모범사례로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강점을 살려 구례에 산다는 것이 자랑이 되는 명품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청 민원실, 차별·불편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 새단장

'큰글자도서' '우선배려창구' 마련

고흥군청 민원실이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다.

고흥군은 군청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새롭게 환경을 재정의했다고 밝혔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고흥군청 민원실은 우선 방문 민원인이 해당 부서·창구·편의시설(수유실, 농평 등)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청사 주 출입구와 민원실 바닥에 표시를 강화했다.

민원실 출입문과 가까운 창구 2개소에 '우선배려창구'를 지정해 영유아가족, 장애인, 노약자 등이 방문 시 우선적으로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디자인했다.

또 모든 민원인이 이용 시 불편 사항이 없도록 ▲어르신용 돋보기, 보청기, 큰글자서식 예시문 등 비치, '큰글자도서' 컴퓨터 운영 ▲영유아 가족을 위한 놀이방 운영, 영유아용 의자·도서·색칠복 등 비치 ▲장애인용 휠체어·점자책·수어 통역 화상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새 단장한 고흥군청 민원실.

화 설치 ▲외국인용 통번역 민원 서비스 지원, 외국어 통번역기 비치 등 편의시설을 구축했다. 민원실을 단순 업무만 보는 곳이 아닌 머무르다 가는 '쉼이 있는 공간' 조성에도 힘썼다. 민원 대기 공간에 소파, 민원서류대 등 재배치해 쉼터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따뜻한 느낌의 원목으로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기존 민원실에 있었던 혈압측정기, 팩스, 프린터 등도 사용이 편리하도록 재배치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민원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순천시, 폭염 속 고독사 예방·고립 해소 지원

AI안부전화 순천케어콜 가동

순천시가 최근 폭염으로 인한 고독사 위험지구 예방을 위해 사각지대 발굴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원 사업은 ▲AI안부전화 순천케어콜 ▲순천살림업 ▲스마트 플러그 돌봄 ▲은둔형외톨이 마음돌봄 등이다. AI 안부 전화 순천케어콜은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중장년 1인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등 30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전화 안부를 묻는 정서돌봄사업이다. 순천 살림 안부 앱은 일정시간(6-7시간) 동안 휴대폰 미사용 시 등록된 보호자에게 문자가 전송돼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긴급한 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앱으로 7월 7일 기준 1332명이 설치했다. 스마트 플러그 돌봄사업은 가전제품에 연결된 스마트 플러그로 전류변화를 감지해 일정 시간 전류·조도에 변화가 없을 시 읍면동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문자가 발송되는 사업으로 현재 85가구에 설치가 완료됐다. 은둔형 외톨이 마음돌봄 사업은 고립·은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심신치유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심리상담·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해 관계 단절 및 고립이 더욱 심해지지 않도록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연락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최경근 여수해양경찰서 'SOS 버튼' 챌린지 동참

최경근 여수해양경찰서

최경근 여수해양경찰서 서장이 해상 긴급 SOS 구조신호와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SOS 구조버튼 누르기'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10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진도군수협 김기영 조합장의 자문을 받아 'SOS 구조버튼 누르기' 챌린지에 동참한 최 서장은 구명조끼를 직접 착용한 후 팻말을 들고 직원들과 함께 캠페인에 나섰다. SOS 구조버튼 누르기 챌린지는 해양수산 관련 기관, 어민 등 국민이 함께 하는 이어가기 형식으로 펼쳐진다.

다양한 장소에서 팻말 등을 들고 '바다에서 위급할 땐 구명조끼를 입고 SOS 버튼을 꼭 누르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최 서장은 다음 참가자로 여수수협 김상문 조합장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을 지



최경근 여수해양경찰서 서장이 SOS 구조버튼 챌린지를 펼치고 있다.

목했다. 최경근 여수해양경찰서장은 "바다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위치 발신 장치의 SOS 긴급 구조 버튼을 누르면 신속한 구조활동에 도움을 주며, 생명과 직결되는 구명조끼는 해양 활동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군, 하반기부터 공직자 소통 강화

'1인 1동호회 갖기' 지원

고흥군이 올해 하반기부터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직장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고흥군은 다양한 취미활동을 중심으로 한 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 공직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이 독서, 스포츠, 음악, 여행, 요리 등 다양한 주제로 동호회를 설립해 군에 신청하면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장소 등을 지원해 활발한 동호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각 동호회는 매월 정기모임과 이벤트를 통해 직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업무 외 다양한 활동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조직 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1인 1동호회 갖기'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세대와 직급 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몰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개인과 조직이 함께 상생하는 조직, 자급보다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출근하고 싶어지는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노동부 여수지청, 리튬·전지 사업장 현장점검

포스코퓨처엠 등 13곳 대상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전남 동부 지역에 위치한 리튬, 전지(배터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 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포스코필라리튬솔루션, 포스코에이치와이리튬메탈, 포스코퓨처엠 등 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13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점검단은 현장에 찾아 비상구 설치·유지와 적정 소화설비 설치, 외국인인을 포함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이행하는지 등을 확인했다. 이경근 노동부 여수지청장은 "화재·폭발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야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